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복음

김헌수 교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는 마르틴 루터가 깊은 영적 투쟁을 통하여 깨달은 사실이고, 중세의 오랜 세월을 잊힌 채 지내오던 그 진리를 바르게 드러낸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다. 루터는 1545년에 출간된 전집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자전적인 고백을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를 싫어하였습니다.……이 의는 형식적 또는 능동적인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고 ‘불의한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의’를 말하는 그러한 의였습니다.……나는 의로우시고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워하였습니다.……이러한 하나님께 엄청난 원망과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나는 밤낮으로 이것(하나님의 의)을 묵상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의 전후 문맥에 집중하였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러한 의로서,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 의입니다. 이러한 의로써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를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다 하시므로, 이러한 의는 수동적 의입니다. 이것을 깨닫자마자 나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고 열린 문을 통과하여 낙원으로 들어갔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시 전체 성경이 다른 빛 아래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¹⁾

루터가 시편과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내적 투쟁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의’는 그를 새롭게 하고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으로 인도한 진리였다. 그리고 이것은 루터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교회들에게도 빛을 비추는 진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에 대한 이해는 단일하지 않았다.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등의 문제가 이후로도 여전히 논의되고

1.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er Ausgabe(Weimar: Böhlau, 1883ff), 54:185-186.

있다. 종교개혁 100주년, 200주년, 3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그림들을 보면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는 루터의 ‘이신칭의’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종교개혁 100주년을 기념하여 1617년에 제작된 요한 글뤽(Johan Glück)의 작품(1617년). 루터가 긴 깃펜(quill)을 잡고 비텐베르크 성채교회의 문에 95개 논제들을 직접 적고 있는 모습과 함께, 그 깃펜의 깃털이 사자의 귀를 뚫고 로마에 있는 교황 레오 10세의 삼중관(tiara)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함께 묘사하였다. 95개 논제들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하였음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믿음의 내용과 의롭게 되는 것 (59문)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59문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라고 묻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제7주일(22문)부터 22주일(58문)까지의 내용에서 가르친 사도 신경을 가리킨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救贖),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聖化)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러한 삼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고 묻는다. 믿음의 필요성과 믿음의 정의(20-21문), 그리고 믿음의 내용(22-58문)에 대해서 다 가르친 다음에 그 유익을 묻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순서이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자인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60문)

60문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한다. 나의 양심이 나를 고소하는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나는 의롭다 함을 얻으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참되게 믿음으로써만 나는 의롭다 함을 얻는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종교개혁 200주년을 즈음하여 나온 작자 미상의 그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채교회 문에 붙여 있는 95개 논제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이는 모습을 묘사한다.)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1) 세 가지 고소

첫째,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하게 어겼다고 고소한다.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님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 되지만(약 2:10), 나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님을 어겨서 모든 계명을 어긴 셈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계명을 다 어겼다.

둘째, 양심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한다.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를 지적하는 말이다(不作爲의 죄).

셋째, 양심은 우리가 아직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고소한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고, 내일 더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것이 끈고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롬 7:24).

(2)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는 앞서 말한 세 가지 고소와 관련이 있다. 세 가지 고소에 대하여 각각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대응한다. 내가 모든 계명을 심하게 어겼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계명을 온전히 만족케 하신 사실을 내어놓고, 내가 하나도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그분의 의로운 행사를 보이며, 내가 지금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입혀 주신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나를 향한 모든 고소에 대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를 온전히 변호하여, 순전히 은혜로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분의 양식으로 삼으셨는데(요 4:34) 그렇게 이루신 순종을 나에게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겨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얻었지만, 그러한 신자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다.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치 내가 원래부터 죄가 없었다는 듯이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다. 또한 신자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는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자백한다. 죄인이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의 모습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이러한 교훈은 죄만을 부각시키는 비판주의나 혹은 반대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무흠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완전주의의 양극단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애통하면서 동시에 위로를 받는 상태가 신자의 신비한 삶이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종교개혁 300주년을 즈음하여 새롭게 그린 율리우스 뢰브너(Julius Hübner, 1806-1882)의 작품. 소년이 95개 논제들을 비텐베르크 성채교회의 문에 못 박고 있는 동안, 루터는 모여든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오직 믿음으로 (61문)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모든 은혜를 얻는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되는 것이다. 성신께서 이루시는 신비한 연합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믿음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믿음 때문에’도 아니고 반대로 ‘믿음이 없이’도 아니며, ‘믿음으

로’ 되는 일이다.

(1) 믿음 때문에 ?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면 나의 믿음이 의롭다 함의 ‘근거’가 되게 된다. 믿음이라는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한 것이므로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엡 2:8-9), ‘나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나의 이해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직 믿음’을 이야기 하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종교적인 감정이나 열정의 회복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일조차 있게 되고,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면 큰 믿음인 것처럼 장려하는 일도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행위로 바뀌는 예가 된다.

(2) 믿음이 없이 ?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릇되게 강조할 때에는, 자칫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 신율법주의에 대한 반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을 수 없다.

(3)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익이 나와 관계를 갖기 위한 수단은 믿음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 우리는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하면서, 수단이 가리키는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아야 한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이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볼

들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의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공효에 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급류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밧줄에 튜브를 달아서 던졌다.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밧줄을 던지고 끌어 준 사람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크게 잘못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반대로 밧줄을 무시하고서는 급류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밧줄을 던진 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되 밧줄을 수단으로 하여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이다.

(4) 믿음 더하기 무엇

‘믿음 더하기 무엇’은 ‘오직 믿음’과 반대되는 견해이다. 믿음에 무엇을 덧붙이면 사실상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 이를테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 선행도 덧붙여야 그것이 구원의 근거로 작용할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교묘하게 교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요즈음에도 믿음과 선행, 믿음과 “신령한 은사”, 믿음과 물질적인 복 등, 시대에 따라서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꾀는 속임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는 무언가 부족해보이고 자기가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할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렘 17:9-10),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롬 8:7). 우리가 주께서 주신 수단에 무엇을 덧붙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는 일이 된다.

오직 믿음(sola fide) = 전체 믿음(tota fide)

‘믿음 더하기 무엇’의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믿음을 빈약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언약의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믿는 첫 단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을 덧붙여야 한다고 시도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롬 1:17)라고 가르쳤다. 처음에 의롭다 함을 얻은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자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자의 삶은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의 의가 언약의 맥락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라면, 그 의를 얻는 수단인 믿음도 언약 백성인 신자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의롭게 된 신자의 삶인 것이다.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은 처음 믿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면서 깊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직 믿음’은 ‘전체 믿음’인 것이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